

청년 자립 지원 '청년생활학교' 문 연다

광주시, 청년센터와 함께 열어

10월29일까지 매주 금요일

건강·주거·노동 등 6개 분야 강좌

광주시가 지역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생활학교'를 개강한다. 매주 금요일 마음건강, 주거, 노동 등 6개 강좌가 열린다.

광주시는 "광주청년센터와 함께 지역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강좌와 사회 구성원으로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강좌 등으로 구성된 '청년생활학교'를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생활학교는 마음건강, 주거, 노동, 인권 분야로 6개 강좌로 구성됐다. 마음건강을 위한 명상부터 집 구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일할 때 필요한 노동상식,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를 한다. 청년생활학교 강좌에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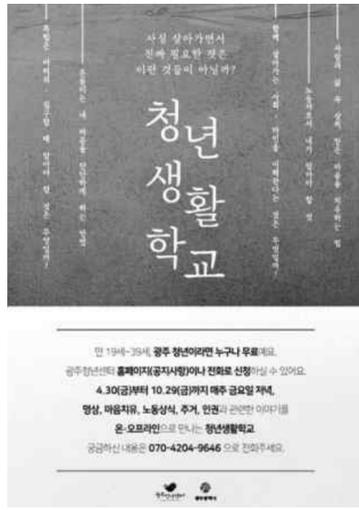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참여한다. 만 19~39세 광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번 강의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 진행된다. 직접 참여가 어려운 청년은 온라인 강좌로도 만날 수 있다. 시는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상담소와의 연계해 청년들의 마음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다.

청년생활학교는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gjyouthcente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4204-9648)로 문의 가능하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청년생활학교를 통해 청년들이 진로, 일자리, 주거 등의 다양한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청렴도 1등급 목표 조직문화 개선 박차

전 직원 토론회...인사 등 의견 수렴

시민 신뢰도 측정 시스템 본격 가동

광주시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 대상 청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각 실·국·사업소별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청렴 영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청 조직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불공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직원 간 소통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선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 ▲개인고충 소통창구 활성화 ▲보조금, 수의계약 모니터링 강화 ▲명확한 업무지시

와 하급자의 의견 존중 ▲세대 간, 상하 간 소통강화와 이해 등이 논의됐다. 또 일·삶 문화 균형과 배려 문화 정착, 청렴교육과 소통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신입 직원 조직·업무적응 지원을 위한 새내기 직원 멘토링 프로그램, 청렴하고 갑질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만들기 선언', 업무담당자에 대한 시민 신뢰도 측정·점검 시스템인 청렴 해피콜 및 기동반 운영 등 부패 가능성을 낮추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동할 방침이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직원의 청렴인식 개선을 위해 직장 내 소통강화와 조직문화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혁신실행계획...시민 중심형 시정 강화

5개 분야·12개 과제·195개 사업 추진

광주시가 올해 시민 중심형 시정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2021년 광주혁신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혁신추진위원회와 시민권익위원회 활동, 혁신TF 가동,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혁신과제를 발굴했으며, 시민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강화, 상생과 도약을 위한 협업문화 조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시정, 협력과 혁신으로 코로나 19 조기극복 등 5개 분야, 12개 과제, 19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업으로 무등산 난개발방지 광주민관 정점협의회 활동,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고위험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 혁신브랜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국내 최초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광주형 복지혁신모델 등 7개 사업을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재호 광주시 혁신소통기획관은 "시정 혁신 노력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대상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해 재정인센티브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정부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 폐방화복 재활용 암투병 소방관 돕는다

119REO와 재활용 업무협약

가방·팔찌 등 40여 상품 제작

광주신세계 백화점 등서 판매

광주소방본부가 폐방화복으로 만든 문화상품을 시민에게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암투병 소방관을 지원한다. 폐방화복을 활용한 상품 40종은 내달 16일까지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서 전시 판매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119REO(주)와

공동으로 폐방화복 재활용을 통해 제작·판매한 문화상품 수익금 중 50%를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암 투병 소방관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

119REO(주)는 폐방화복과 소화호수를 재활용해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수익의 50%를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관에게 후원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1월12일 119REO(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폐방화복을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하고 방화복 250벌을 제공했다.

방화복 한벌은 36조각으로 분해돼 가방, 카드지

갑, 팔찌 등 40종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폐방화복으로 제작한 가방과 액세서리 등 제품은 5월 16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서 특별기획전으로 시민에게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장조원 1층 기념품 판매점에서도 폐방화복으로 제작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영돈 광주시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준 방화복이 함께 현장을 누빈 암 투병 소방관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됐다"며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뿐인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돈 광주시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준 방화복이 함께 현장을 누빈 암 투병 소방관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됐다"며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뿐인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생명안전 지킴이' 광주소방

화보 제작 카카오톡 채널 공개

삶의 슬한 위험에서 생명을 구하는 광주 소방관들의 모습을 담은 2021년 '광주소방 화보'가 광주시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 이송업무에 투입된 구급대원들의 모습이다.

2019년 이후 올해 3회째 제작된 광주소방 화보에는 화재·구조·구급은 물론 맨홀구조, 소방드론 운영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소방관들의 다양한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하반기 화보를 액자로 제작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광주소방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인공지능 청년협회·엑센트리벤처스 업무협약

청년AI 기업 투자 활성화·지원 나선다

광주인공지능 청년협회와 글로벌 투자전문기업인 엑센트리벤처스가 청년AI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인공지능 청년협회는 지난 23일 광주아이플렉스에서 열린 '제1회 네트워킹데이'에서 글로벌 투자전문기업 엑센트리벤처스와 광주지역 청년AI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인공지능청년협회는 AI기술을 통한 광주 청년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 강화, 광주 시민의 AI기술 인식개선과 심리적 거리감 해소, 광주 AI기술 활용기업 및 단체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1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엑센트리벤처스는 인더스트리 4.0 유니콘 육성 특화 엑셀러레이터로, 런던 레벨 39센터에 이어

2018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엑셀러레이션 센터, 지난해 광주 아이플렉스 광주센터 등을 개소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투자환경 활성화 협력 ▲협회 초기 자금유지를 위한 컨설팅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협회와 엑센트리벤처스 투자유치 전략 동참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 인공지능 청년기업의 초기 운영자금난이 해소되고 투자환경 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기업들이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